

“소설은 오아시스 같은 것...죽음 닮았죠”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차노휘 작가 '죽음의 섬' 펴내

비클린 '죽음의 섬' 그림 모티브

현실과 환상 넘나드는 이야기

“소설은 오아시스와 같아요. 가까이 가면 떨어지니까요. 어쩌면 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소설은 죽음을 닮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 또박또박 발자국을 남기는 자체가 죽음과 가까워지는 작업 아니까요.”

차노휘 작가는 삶은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삶은 소설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라고 정의한다.

오랜만에 만난 차노휘 작가는 따끈따끈한 장편소설을 내밀었다. 그의 손에 들린 첫 장편 '죽음의 섬' (청어)은 제목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소설이 죽음과 닮았다”는 작가의 말을 듣고 실상 제목에 ‘죽음’이 들어 있는 소설을 받았을 때의 느낌은 강렬했다. 뭐랄까, 섬뜩하면서도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느낌.

광주일보 신춘문예(2009) 출신인 차 작가의 이번 장편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소름끼치는 공포’로 가득하다. 미스터리한 사건 속에 전개되는 서사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재작년 여름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와서는 차 작가가 “소설을 하나 쓰고 있다”는 말을 했었다. 이번 신작이 그때 말한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시간이 참 빨리도 간다는 생각을 했다. 한편으

로 포기하지 않고 장편을 풀어낸 작가의 특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소설은 비클린의 ‘죽음의 섬’이라는 그림이 모티브가 됐어요. 다섯 개의 버전 중에서 1880년대 최초로 완성한 일종의 추모 그림입니다. 젊어서 미망인이 된 마리 베르나의 요청으로 그렸다고 하지요.”

차 작가는 이 그림에서 배어나오는 어두우면서도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고 한다. 조각배 뱃머리에 관이 실려 있는 그림이다. 바로 옆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사체가 기도를 하고 있고, 뱃사공은 태연히 노를 젓는다.

“조각배가 미끄러지듯 바위섬으로 흘러가는데 그곳에는 사이프러스가 몇 그루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험이 있고요. 타르처럼 검고 깊은 바다는 죽음을 담고 있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차 작가는 등단작과 첫 소설집에서 죽음과 육망의 문제를 탐색했다. 소설가나 시인,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도 첫 입문의 주제를 이후의 창작에서도 천착하는 경우가 있다. 어쩌면 평생을 걸쳐 단 하나의 주제를 새롭게 변주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생경하지는 않다. (물론 일정한 주기를 두고 주제를 달리하는 예술가들도 있지만) 차 작가는 이번 장편을 수년 전에 구상



했다. 모티브가 숙성이 되고 온전한 이야기로 발전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렸던 모양이다. 그러나 막상 작품을 집필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전체 분량을 3개월 만에 채웠다. “디테일한 묘사와 전체적인 구조를 아귀에 맞게 배열하는데 공이 들었다는 얘기가.”

소설은 27세의 설지원이라는 청년이 별장지기 구인공고를 보고 ‘영무도’라는 섬에 도착하면서 전개된다. 지원은 일을 시작하면서 점차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섬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시종일관 웃는다는 사실이다. 얼마 후 지원은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외부와 차단된 섬에서 지원은 알 수 없는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금지 구역인 별장 2층과 3층에 들어간다.

소설은 현실과 환상을 수시로 넘나들며 전개된다. 차 작가는 “어디가 현실이며 어디가 환상인지를 이야기 곳곳에서 더듬게 만

들고 싶었다”며 “각 절마다 제시된 주인공의 얘기는 ‘죽음의 섬’의 골격”이라고 했다.

최수용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는 추천사에서 “차노휘의 소설에서 공포를 느꼈다면 강렬한 소재나 긴박한 진행 때문은 아니다. 그보다 우리시대의 불확실성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한다.

차 작가는 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지난 2017년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했다. 철저하게 자신과 대면하고 싶어 무작정 산티아고로 떠났다. “발톱 4개가 빠지고 왼쪽 발바닥 피부가 다 벗겨지는” 절박한 상황에도 직면했지만 끝까지 완주를 했다. 걸으면서 때때로 소설을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무한한 자유를 느꼈다.

현재 차 작가는 창작활동 외에도 광주대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박사논문을 쓰느라, 창작과 학문이라는 두 과정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

“박사논문이 통과되기까지 적잖이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했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당시에 ‘죽음의 섬’ 소설이 모 문학상 공모에 본심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출판관을 하기까지는 자난한 과정이 있었죠.”

차 소설가는 꾸준히 소설을 쓰다보면 언젠가는 “진정한 소설과 조우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길 위의 삶이 소설로 가는 길이라면 그 흔적들을 제대로 남기고 싶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내 힘으로, 물론 보폭을 존중하면서도. 무엇보다 걷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성·형식미...정제된 언어로 갈무리

강진 출신 유현 시조시인

두번째 시집 '노을치마' 펴내

정형의 양식을 토대로 활달한 시상을 정제된 언어로 갈무리한 시조시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강진 출신 유현 시조시인이 펴낸 두번째 시집 '노을치마' (책만드는집)는 예술성과 형식미를 겸비한 보기 드문 작품집이다.

“애주”, “천학, 날다”, “달콤한 노을”, “총총”, “떠나는 것은 붉다” 등 모두 5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모두 78편의 현대시조가 실려 있다.

표제시 ‘노을치마’는 남한강변의 병든 아내 흥씨가 강진 유배지의 다산 정약용에게 보낸 신혼의 다홍치마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복숭아 꽃잎처럼/ 날아온 편지 한 장 // 그 백지 그러안고 천일각에 올라서니 // 강물이 절뚝거리며 // 내게로 오고 있다 // 사금파리 날 같은 운술에 눈이 먼 새 // 팽팽한 연줄 한 올 움켜쥔 흰 물새가 / 누엿한 뽕새를 물고 내게로 오고 있다 / 미처 못다 부른 / 연서 한 필 펼쳐 두고 // 말 없는 그 말들이 초당에 쌓이는 밤 // 아원 강 뒤척일 때마다 // 일어서는 저녁놀” (‘노을치마 2’ 전문)



‘노을치마 2’ 또한 유배지에서 다산의 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아내가 보내온 다홍치마를 “미처 못다 부른 연서 한 필 펼쳐 두고”라고 표현한 대목은 절창이다.

이처럼 이번 시집에는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도 다산을 잊지 못한 흥씨 부인의 덕을 기리는 시 ‘생가의 달’, 다산과 주도의 운명적인 만남을 형상화한 ‘적소의 밤’ 등 다산 관련 작품이 다수 실려 있다.

해설을 쓴 문학평론가 유성호 한양대 교수는 “견고한 정형 양식 안에서도 매우 자유롭고 활달한 시상을 가로지르면서, 인간 실존의 다양성과 역사의 준엄한 흐름 그리고 사물의 근원적 이법을 심원하게 투시하고 채집한 미학적 집성”이라고 평한다.

한편 유현 시인은 ‘월간문학’과 ‘한국수필’, ‘국제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 ‘발침 없는 편지’를 펴냈다. 현재 목포대 평생교육원과 강진군 도서관에서 현대시조를 강의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광주 공연

21일 조선대 해오름관...수익금 기부

22일 수영대회 성공기원 5·18민주광장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광주를 찾아온다. 21일 오후 7시 30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2일 오후 8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야외특설무대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20일전 기념 공연을 펼칠 예정이기도 하다. 교촌의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교촌 고객과 시민들을 위한 나눔 초청 공연 형태로 펼쳐진다.

쇼스타코비치의 ‘축전서곡’으로 시작해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작품36번’과 ‘백조의 호수’, 하차투리안 ‘사르데 댄스’를 무대에 올린다. 베르디의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레오노라의 카바레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 등 오페라 아리아도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러시아 아쿠티아 국립음대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총장 노태철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이번 루딘 피아니스트, 프라스코비아 게라시모바 소프라노, 유리 바이셰프 바리톤이 참여한다.

1989년 창단한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모스크바 850주년, 괴테 250주년, 푸시킨 200주년 등 기념음악회에서 초청공연을 가졌으며 하차투리안의 미발표 유작 ‘맥베드’, ‘리어왕’을 세계초연했다. 지난 2010년에는 한-러 수교 20주

년 기념 음악회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공연 수익금은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한다.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02-588-8654.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의사 시인 박세영

‘날개 달린 청진기’ 펴내

15일 출판기념회

“삶의 고통으로부터 예술은 꽃 핀다. 질병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희망의 싹이 움튼 때까지 날개를 달고 싶다. 아픔으로부터 시작되는 진로. 이는 나의 소명이다. 이 땅의 모든 숨소리를 듣는다.”

‘의사 시인’ 박세영이 시집 ‘날개 달린 청진기’ (시와문화)를 펴냈다.

모두 60여 편의 시가 수록된 작품집에는 의학적이면서 사람과 자연에 대한 사유를 놓지 않는 시인 특유의 성찰이 담겨 있다. 편리함과 이기를 가져다 준 문명 너머의 자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깊다. “응급 사이렌 소리에/ 뒤척이던 잠에서 눈이 번쩍 뜨인다/(중략) 자동 제세동기의 심박충격, 이어지는/ 심폐소생술/ 정상 복귀한 심박수와 생체 징후/ 한숨 돌린다/ 북어 독소에 진땀 뻘/ 응급실 당직의./ 뱃속에 담아놓은 독소/ 평온하기 그지없는 바다에서 불합한/ 내밀한 마음 속/ 바다가 무섭다”(‘북어 독’ 중에서)



위의 시 ‘북어 독’은 응급환자에 실려 온 환자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가까스로 북어 독소를 제거한 환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화자의 심상은 ‘무서운바다’와

한바탕 사투를 한 느낌이다. 화자의 모습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와 내면을 탐색하는 시인의 모습이 겹쳐진다.

박용우 시인은 해설에서 ‘북어가 독을 안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삶의 바다를 부유하는 인간만큼은 그 같은 독을 버릴 때 비로소 평화와 상생의 공간이 열린다는 사유를 환기시키는 시’라고 평한다.

한편 박 시인은 조선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날개 달린 청진기’ 출판 기념회가 오는 15일 오후 6시 수완 오페라하우스 2층(광산구 장덕동)에서 열린다. 시노래, 시낭송, 문학토론, 축하음악 등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419-5789.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헬싱가 매운맛, 달달한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 010-3844-7145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 010-4106-505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분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임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백세쭈꾸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그집고기

북구 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교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실험2층) 작명·사주·운세·궁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국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